

퇴폐이발소 18명구속

침실·샤워시설까지 갖춰
女면도사고용 윤락행위

대낮영업 카바레 22곳도 적발

서울지검을 수 2부 (崔慶元 부장, 李貴男 검사)는 8일 침실과 샤워실까지 갖춰놓고 여자면도사들을 고용, 윤락행위를 시켰던 서울 鍾路區 鍾路5街 한미이발소주인 徐七鉉씨(43) 등 퇴폐이발소주인 13명과 이용사 3명, 면도사 2명 등 모두 18명을 공동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영업이 금지돼 있는 낮시간에 가전주부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온 서울 中區 乙支路5街 야전동카바레

(주인 金孝俊·46 등 22곳을 적발, 관계기관에 통보해 영업정지 처분토록 했으며, 영주들은 모두 신원확립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미이발소주인 徐씨는 여자면도사 8명을 고용, 침실과 샤워실을 갖춘 카바레를 시키고 이들을 면도사들로부터 대략 월급 1천여 만원을 벌어들였다는 것. 적발된 카바레주인들은 영업시간이 하루 6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로 제한돼 있는데도 하루 2시부터 문을 열고 낮시간에 가전주부와 제비족들을 끌어들이며 영업을 해왔다.

일제강점기인 전국 노점상연합회 소속 노점상 2백여명이 8일 성명을 발표, 『永登浦乙

區, 선거에서 연합해 永登浦 지회를 중심으로 反民主黨투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점상들은 또 정부가 대화를 계속 거부할 경우 벌과 민서명운동과 함께 지부별로 「빼앗긴자리 되찾기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영업이 금지돼 있는 낮시간에 가전주부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온 서울 中區 乙支路5街 야전동카바레

(주인 金孝俊·46 등 22곳을 적발, 관계기관에 통보해 영업정지 처분토록 했으며, 영주들은 모두 신원확립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미이발소주인 徐씨는 여자면도사 8명을 고용, 침실과 샤워실을 갖춘 카바레를 시키고 이들을 면도사들로부터 대략 월급 1천여 만원을 벌어들였다는 것. 적발된 카바레주인들은 영업시간이 하루 6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로 제한돼 있는데도 하루 2시부터 문을 열고 낮시간에 가전주부와 제비족들을 끌어들이며 영업을 해왔다.

일제강점기인 전국 노점상연합회 소속 노점상 2백여명이 8일 성명을 발표, 『永登浦乙

區, 선거에서 연합해 永登浦 지회를 중심으로 反民主黨투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영업이 금지돼 있는 낮시간에 가전주부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온 서울 中區 乙支路5街 야전동카바레

(주인 金孝俊·46 등 22곳을 적발, 관계기관에 통보해 영업정지 처분토록 했으며, 영주들은 모두 신원확립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미이발소주인 徐씨는 여자면도사 8명을 고용, 침실과 샤워실을 갖춘 카바레를 시키고 이들을 면도사들로부터 대략 월급 1천여 만원을 벌어들였다는 것. 적발된 카바레주인들은 영업시간이 하루 6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로 제한돼 있는데도 하루 2시부터 문을 열고 낮시간에 가전주부와 제비족들을 끌어들이며 영업을 해왔다.

일제강점기인 전국 노점상연합회 소속 노점상 2백여명이 8일 성명을 발표, 『永登浦乙

區, 선거에서 연합해 永登浦 지회를 중심으로 反民主黨투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북 퇴폐이발소 여종업원 10명중 1명 매독감염

89.4.26

서울 강북지역 퇴폐이용업소 여종업원 가운데 9.1%가 매독에 감염돼 있으며 10.3%가 비임균성 요도염에 감염돼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보사부와 합동으로 지난 18일 종로·성동·동대문·중구 등 강북지역 86개 퇴폐이용업소에 근무하는

여자종업원 1백75명을 대상으로 혈액을 채취, 에이즈와 매독검사를 실시하고 각구 보건소에서 임질 등 성병검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검사대상자 1백75명 가운데 에이즈 감염자는 없었으나 매독 감염자는 16명으로 검사 대상자의 9.1%를 차지했으며 임균검사를 실시한 97명 가운데서는 10명인 10.3%가 비임균성 요도염에 걸려 있는 것으로 판정됐다.

이같은 감염률은 지난 2월 강남지역 퇴폐이용업소 여종업원들의 매독 감염률 5.2%보다 높고, 임균 감염률은 강남지역 16.7%에 비해 낮으나 시 보건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수업태부성병 감염률(매독 3.0%, 임질 등 6.6%)보다 높은 수치이다.

퇴폐업소 1백25곳 적발 34곳 고발·9곳 허가취소

89.10.18

서울시는 16·17일 이들 동안 무허가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변태·퇴폐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1백25개 업소를 적발, 이 중 34곳을 고발하고 9곳의 허가를 취소했다.

단속대상업소는 무도유흥·일반유흥·대중음식점과 이발소, 다방 등 3백69곳이었으며 위반내용은 밀실·간막이 설치 40곳, 무허가영업 34곳, 건강진단 미필이 26곳 등이었다.

퇴폐이발소 30곳 적발 영업정지·경고등 조치

89.4.27

서울시는 지난 18일 보사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퇴폐이발소 단속에서 적발된 인테리이발소(대표 이은희·동대문구 장안동 372-3) 등 30개 업소에 대해 20일 영업정지·경고 등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현장에서 채혈한 여자보조원 1백75명의 혈청에 대해 국립보건원에 성병검사를 의뢰했다.